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2월 20일(금)  
(음력 11월 24일)

Пятница  
20 декабря 2019г.  
№ 49(11686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주, 주요 올카 트리 점화식

지난 14일(토) 주 정부 청사 앞마당에서 방문객들과 시민들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주요 올카(성탄 트리) 점화식이 열렸다. 행사에 모스크바 예술단의 참여해 특별 무대 공연을 선보였다.

"오늘 가장 설레며, 가장 반가운 연례 새해맞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올카 트리에 장식된 여러 색의 불빛과 함께 여러분 가내에 특별한 반가움과 좋은 일을 기대하는 즐거움과 소망이 성취되는 기쁨이 찾아오길 기원하며 여러분에게 행복과 강건함과 기쁨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수상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광장에 모인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광장에서는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댄스 플래시몹이 열렸고 모스크바 아티스트들의 음악연극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 주었다.

◀ 축하 행사는 사할린주의 주요 성탄 트리 점화와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다.

(취재: 이예식 기자)

## 사할린 주, 암 발견을 위한 새로운 영상 촬영 프로그램 실시

2020년부터 암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사할린 지역에서 영상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위암 진단 내시경 검사>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사할린의 전문의들과 함께 주내 위암 진단의 일련의 과정을 러시아 연방 의학 교수, 러시아 비정상 태성 수석 병리학자, 러시아 위장병 전문의연합회 올레그 사블린 대표위원, '피로고브' 국립 외과 의료센터 내시경 진단과 블라디미르 말코브 과장이 함께 했다.

이 행사에 주 예방 및 치료 기관의 대표들과 의료계 다양한 경력의 전문의들이 참석했다.

"사할린주는 암 사망률이 극동지역에서 가장 높다. 유감스럽게도 사할린에서 암 조기 발견은 아직도 수준이 낮은 편이다. 진단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좀더 일찍 병을 발견할수록 이를 위한 치료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사할린의 블라디미르 유슈코 보건부 장관이 언급했다.

사할린에서는 종양의 악성

에 대비해 의료장비의 기술 기반을 한층 완성시키고 높은 기술을 갖춘 인재 유치 등, 종합적 대책을 갖추어가고 있다. 또한 암 치료 발전을 위해 국내 암센터의 수석 전문의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도움으로 악성 종양의 치료와 새로운 진단법을 도입 및 개발했다.

2019년 8월에는 사할린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법으로 폐암 발견 활동을 시작하여

이 기획이 러시아 연방에서 우수 사회 활동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4개월간 활동으로 3242명의 주민이 검사를 받아 그중 105명이 악성으로의 전환이 의심되는 것을 밝혀냈다.

다음 단계로 영상 단층 촬영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대장암과 위장 종양의 조기 발견하는 것이다. 2020년 사할린주는 위암과 대장암을 포함해 악성 종양에 대한 6종류의 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조기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성장 거점> 현대적 교육센터가 사할린주 지방학교들에 개설

이 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은 로봇공학, 프로그래밍, 항공기 시뮬레이션, 산업 디자인을 배울 수 있게 된다. 1학년-11학년의 학생들에게 무료 강습을 실시하며 올 연말까지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15개의 <성장 거점>교육센터가 열린다.

첫 현대적 교육센터는 코르사코브 구역 솔로비요브카 마을 학교 내에 개설되었다. <성장 거점> 교육센터는 디지털 종합세트, 3D 프린터, 드론, 의료실습 마네킹, 사진 촬영을 위한 디지털 기기와 로봇공학 조립세트를 구입했다. 이 기기들로 창작과 전략적, 공간적 사고를 한층 완성시켜줄 것으로 전망한다. 수업 후 교육센터에서 그룹과 파트별로 참여하며 보충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로봇트를 조립하거나 3D 모델을 구성하고, 산업 디자인 작업을 해볼 수 있다.

이로써 학생들은 더 나은 실력으로 모임이나 포럼, 올림피아드, 연방 및 지역 경연에 참가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다. 올 연말까지 현대적 교육센터는 오노르, 레오니도워, 부슈클리, 위스크레세노브카, 므가치, 타라나이, 빅코브, 스타로둡스코예, 고르노자워드스크, 야블로츠노예, 보쉬나코워, 말로쿠일스코예 마을 학교에 개설된다.

2020년에는 이 기획에 33개 학교가 합류한다.

"향후 몇 년간 지방의 이 교육센터가 지방의 각 마을 학교에 개설되며 주 예산에서 이 목적으로 8천만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이외에도 내년에 우리는 연방 지원금으로 2100만 루블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라고 나탈리아 무라쇼와 교육부 장관이 강조했다.

교사들이 교육센터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퀀토리움> 아동 기술공원 건물에서 50명 이상의 지방학교 교사들에게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 단신

### 12월 19일,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12월 19일 사할린 현지 시간 20시 (모스크바 시간 정오 12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례 대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전 러시아인민전선 사할린 지부는 주내 모든 구역에서 기자회견 상영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해 민간단체 활동가, 모든 희망자들을 초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사할린주 과학도서관에서 방청 자리를 마련했다.

### 사할린주, 새 투자부 설립 계획

지난 18일(수) 주 정부에서 열린 주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가 새로운 투자부 설립에 대한 제안을 했다. 투자부 개설은 칼루가주 출장 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 경험을 공유해 사할린주 정부도 산업 기술단지과 협력할 것이며 사할린에 종합 의료센터, IT 집합체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갖춘 공학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기획은 2020년의 과제로서 이외에도 내년에는 농업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사할린에서 두 번째 <퀀토리움> 열려

지난 19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김나지아 보충교육 건물에 위치한 아동 테크노파크 <퀀토리움>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2020년에는 여기에서 11세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모집은 1월 말까지 하며 수업은 무료다. 1

19일 <퀀토리움>을 방문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오픈식을 위해 준비한 빨간 냉동 리본을 망치로 깨 테크노파크의 공식 개장을 알렸다.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주한인협회 결산선거회의에서

# 박순옥, сахалин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재선

지난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сахалин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회의가 소집됐다. 이에 대표 47명 중 39명이 참석했다고 회의 의장을 맡게 된 오진하 결산·선거 대표자 회의 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알렸다.

회의 실무진으로는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한인협회 김홍지 회장과 결산·선거 회의 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오진하 주한인회 운영 위원이 선발되었다.

회의 의정에는 8가지 의제가 올랐다. 주한인협회의 2016년 12월-2019년 12월까지 사업 결과 보고, 결산기간 감사위원회 보고, сахалин주 한인협회 회장 선거, 주한인협회에 단체 회원 가입 및 탈퇴 문제, 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거, 동회 감사위원 선거, сахалин주 한인회 부회장 승인, 동 협회 운영위 간부 선거 등 총 8개이다.

회의 의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임위원과 투표위원도 선거했다.

2016년 12월-2019년 12월 간 사업 보고를 한 박순옥 회장은 약 30분에 걸쳐 주한인협회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보고는 사업의 30%만 소개되었다고 했다. 보고를 시작한 박순옥 회장은 회장으로 선출할 때 중점을 두기로 한 사업과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сахалин 한인특별법 통과 촉진 사업,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유지보급, 모든 한인단체 단합, сахалин주 한인회 단체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 등이다. 물론 сахалин 한인 1세들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 12월 10일 현재 сахалин주가 갖고 있는 1세대 명단에는 (영주귀국을 했다가 сахалин으로 돌아온 1세분 포함) 530명이 올라 있다.

сахалин주 한인협회는 일본 적십자사와의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이 마련한 주한인문화센터 내 의료 상담실 운영(의약품 구입 등)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다. 이에 대한 협정 유효기간은 이미 2011년에 마감되었는데 해마다 이 협정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이다. 올해도 이 협정을 연장했으나 아직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상담실이 지장 없이 운영되도록 주한인회 측의 자금으로 우선 의약품을 구입했다. 현재 104가지 약품을 1세분들에게 분배하는데 스미르니흐 어르신들을 제외한 주내 모든 지방에서 이 의약품을 보급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сахалин1세 동포 한국 초청 진료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4차를 거쳐 85명의 1세분들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이들을 51명의 가족 보호자가 인솔했다. 올해는 30명을 보내야 했는데 13명만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관계로 다른 조치를 급히 마련해 11월에 잔류 1세들을 위한 <현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네스크, 고르노사워드스크, 토마리, 크라스노고르스크와 마카로브 5곳을 방문해 сахалин 의사들이 기초 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 간담회(식사, 공연), 선물 증정 등을 추진했다. (자세한 보도 분지 2019년 12월 6일 호 - 기자 주).

주한인협회는 1세분들에게 새고려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97명, 2018년에는 148명, 2019년에는 150명이 한민족지를 받고 있다.

해마다 한국 민간단체인 KIN(지구촌동포연대)이 모금으로 제작한 음력달력을 주한인회를 통해 1

세분들에게 나누고 있다. 그의 주 정부 장려금 기획의 일환으로 주한인회가 직접 제작한 달력도 배분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을 위한 사업이 적은 편이라 올해는 <60+클럽>을 구성했다. 클럽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올해 국민 단결의 날 행진에 약 60명이 참가했다.

우선적 사업 중 하나는 주한인협회 활동에 청년들을 유치하는 일이다. 청년부 조직은 3번 시도 끝에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2018년에 сахалин 한인들에게 중요한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거의 모든 행사를 도맡아 진행했고 2019년에는 сахалин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를 맡아 좋은 반응을 얻어 캠프를 2번째도 열었다.

청년들이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이들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서울에서 개최된 청년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또한 재능을 가



진(교육, 예술, 스포츠 분야 등)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팀을 위해 악기를 구입하고 한국 연수도 보냈다. 태권도 선수들을 위해서도 상금도 마련하고 해마다 주한인협회 수상컵 미니축구 경기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한인디아스포라 탁구대회도 진행된다.

지난 3년간에 주한인협회는 5가지 장려금 기획(주정부 지원 프로젝트 - 3개, 지방자치체 지원 프로젝트 1, <сахалин 에너지> 회사 지원 프로젝트 - 1)를 실시했다. 박순옥 회장은 <한 가정에서>(한민족문화 알리기, <미주호촌의 비밀>기획 영상제작, 이예식 기자의 <귀환>사진전 등), <세대 간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차세대 한민족 문화 보급 등), <살아있는 전통에 문을 열며>, <노년층을 존중하며 삶을 지킵니다>등 기획들을 간단히 소개했다. 기획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지속적이어야 하고 주한인협회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박회장이 강조했다.

сахалин 한인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는 сахалин 한인들의 청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2017년 말에는 박순옥 회장은 한국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회의에서 сахалин 한인 문제를 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 해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에서 다시 만난 이낙연 총리는 сахалин 한인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2월에는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를 주최하고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토크협회·сахалин주한인협회가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약 60명의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협의회 자문위원, 언론인, 그리고 한국 국회 의원들이 сахалин을 방문했다. 그때 сахалин 특별법 문제를 내세워 3월 중순에 국회의원들이 새 특별법안을 сахалин으로 보내왔다. 법안을 번역하고, 검토하고 제안을 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조성해 сахалин 한인들의 제안을 국회를 비롯해 여러 기관과 정치인들에게 발송했다.

(7면에 계속)

## 이모저모

### сахалин 장애인들을 위해 <112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거리들에 47개의 긴급 통신 단말기가 설치되었다. 이 기기는 긴급 상황 시 개인 전화기가 없어도 운영 서비스센터로 연결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주민들을 포함해 장애를 가진 주민들도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우선 단추를 누르고 이어 신호가 <112시스템>운영센터로 연결되면 인근의 긴급 구조대가 사고 지점으로 출동하게 된다. <112 시스템> 최신화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에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전 지역에 약 100대의 긴급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안나 미헤와 주 민방위 및 비상사태 본부장이 언급했다.

주 정부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현재 сахалин주의 <112 시스템> 기능 사용에 대해 장애를 가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긴급 통신 센터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기기의 작동법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활동을 한다. 최근 12월 10일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마지막 실습이 진행된 가운데 시각 장애를 가진 сахалин 주민들을 초대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112 시스템>을 숙지하고 있었다.

올해는 이 시스템으로 메시지 수신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 청각 장애를 가진 주민도 이 서비스의 담당자로부터 응답을 전화상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сахалин 지역은 러시아에서 처음 상호 긴급 연락망을 가

동시키는 지역들 중 한 곳이 되었다. 현재 운영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긴급 구조 요청과 주택 공공사업 분야의 문제와 범죄에 대한 문자 메시지 신고를 받고 있다. 112 신고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전송은 무료다.

### <Система-112> стала доступне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инвалидов

На ул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становили 47 терминалов экстренной связи. Этот аппарат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в оперативные службы даже при отсутствии телефона.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ми могут все жители, в том числе граждане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Чтобы перед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исшествии, необходимо нажать кнопку. Далее сигнал поступает в центр обработки вызовов «Системы-112», и к месту отправятся находящиеся поблизости экстренные службы,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О и ЧС Анна Михеева. — Согласно программе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ы-112», в 2020 году размещение терминал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 их количество доведут до 100.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информированию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о возможностях «Системы-112».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экстренных вызовов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 для них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которых рассказывают и показывают, как работает комплекс. Последняя экскурсия в центре прошла 10 декабря, на нее пригласили слабовидящих сахалинцев.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уже знакомы с работой службы 112.

А в этом году в системе внедрили услугу приема смс, так что теперь обратиться к операторам и получить ответ сообщением на телефон могут и люди с нарушением слух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в котором работает такая функци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Диспетчерам регулярно приходит «эсэмэски» с просьбой вызвать скорую, а также — 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и проблемах в сфере ЖКХ. Как и звонки, смс-сообщения на номер 112 бесплатны.

### сахалин, 주민 5명중 1명이 10여만루블리 임금 받는다

러시아에서는 2019년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지역들이 선정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6개 지역 - 추코트카, 야말로네네츠크·네네츠크 자치구,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сахалин주-의 주민 1/5이 10만 루블리 이상을 벌고 있고 동시에 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2만 - 5만2천 루블리 정도이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сахалин과 쿠릴에서 월평균 10만 루블리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20.9% 이고, 노동자 0.6%는 월평균 1만5천 루블리를 받는 것으로 보고했다. 평균적 월 임금은 5만7천 루블리이고 대부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만3천 - 8만7천 루블리를 오르내리고 있다.

### На Сахалине каждый пятый получает больше 100 тысяч зарплаты

В России назвали регионы с самой высокой средней зарплатой в 2019 году.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шести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Чукотский, Ямало-Ненецкий и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е округа, Москва, Мурманская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и) каждый пятый зарабатывает боле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по стране варьирует от 20 до 52 тысяч.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100 и более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зарабатывают 20,9% работающих, 0,6% трудящихся ежемесячно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всего на 15 тысяч рублей.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특별상

# 사할린에서 타향살이 80년, 우리 가족 역사의 운명이 되었다

전채련 (1931년생)

대한민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은 우리의 고향이다. 경주시로 이주하고 3년이 지나 우리는 사할린에 오게 되었다.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타향살이 80년이 되었구나! 사할린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 내가 8세가 되던 해 어린 동생 수문이가 첫돌 지나서 오빠와 어머니를 따라 11월 겨울에 사할린으로 왔다.



어머니와 나는 배와 기차에서도 멀미하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

12월,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텐나이'라는 오래된 탄광으로 오게 되었다. 추운 곳이었다. 벌써 눈이 와서 사방이 백설로 뒤덮여 사방이 하얗고 찬 바람이 자주 불어오고, 눈이 오면 '풍설'이라 하여 거리에 쌓인 눈이 허리까지 높아지고 소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취소되는 휴일이 되었다.

우리 가족이 왜 사할린에 오게 되었는지? 전쟁 시대 때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글로 적어본다.

고향 의성은 그 당시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채근, 큰아버지는 전석근, 두 번째 큰아버지는 전오선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1903년생, 어머니도 1903년생 동갑이십니다. 아버지의 삼 형제 가족이 한 집에 살며 조부, 증조부까지 모시고 큰 대가족이 선조의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침략하여 우리 선조의 땅을 강탈하고 자기네 지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땅을 빼앗겼으니 농사를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큰아버지 두 분이 일본 땅 사할린의 탄광으로 일하시러 가셨답니다. 1년 후 두 큰아버지의 남은 가족들은 큰아버지들이 일하시는 곳, 사할린으로 찾아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증조부께서 사망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증조부의 사망을 알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아 할아버지는 9일까지 기다리시다가 초상을 치르셨다고 하셨습니다. 1931년 내가 태어나 할아버지께서 '귀염이'라고 부르시며 아주 귀여워 하였고, 많이 사랑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할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언니는 16세 때 경주시로 출가하였습니다. 1922년생인 우리 오빠는 의성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경주시로 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서를 좋아해서 집에 계실 때면 저녁에 이웃 사람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 해설해가며 이야기도 하시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호롱불을 켜놓고 아버지는 책을 읽으시고 어머니는 호롱불 곁에서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책 한 권을 싸서 비단 천 안에 넣어가지고 오시다가 경찰에 다 빼앗기고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나 자유 없이 왕래가 금지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나는 큰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경찰이 와서 밖에 있는 화장실의 뚜껑을 열어놓고 어머니를 그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서 내가 빨리 뛰어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우리 엄마를 놔주세요!" 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8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내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의 원수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 눈물까지 납니다. 아버지께서 가져오시려 했던 책의 내용 때문에 아버지는 일본인을 반대하는 사상가로 지목되어 의성 집으로 오시지 못하고 어머니와 나는 경주 언니가 사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낳아 키우며 채소 상점을 경영했지요. 나

는 언니 집에 아기를 돌보아 주러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주시로 몇 번 오셨다가 다시 끌려가셨습니다. 1938년에 동생 수문이가 태어났고 내가 8세가 되어 초등학교 입학에 등록하였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 오빠도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웃 친구는 아버지가 경관이라서인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나는 부러워서 학교의 마당까지 가보고 왔습니다. 오빠는 15세가 되어 중학교에 못 들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1937년 사할린 탄광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경주에 있는 동생 채련이가 학교 입학에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빠는 저를 위해 휴가를 받고 와서는 경주시로 가서 증명서를 빨리 받아 어머니와 동생과 저에게 사할린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할린에는 조선학교가 없고 일본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타향인 사할린에 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면회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 서계셨는데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았는지 흰 천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감고 있었고 무척 몸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잠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후에 사할린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끝내 무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자기네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함께 다니는 것을 보면 아주 부러웠습니다. 사할린에 오자, 한국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니시오 따에꼬'라고 불리게 되었고 일본 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나는 한인이다.'라며 강하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가 겨울 셔츠를 사가지고 와서 한복을 벗고 셔츠를 입고 12월이 지나 1940년 봄에 일본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한복만 입고 계시고 상점에 나가실 때도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이웃집 한인 여자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복을 기워달라고 사정하며 부탁하면 어머니는 거절하지 못하시고 기워주셔서 그 값으로 돈을 받았습니. 한국에서 와서 아무도 없는 빈집에 살게 되니 용돈도 필요해서 며칠 동안 한복을 기워주셨는데, 우리 오빠가 그것을 알게 되자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일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주문을 받지 마세요. 제가 일을 좀 더하면 되지요." 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처음에는 1교대로 일을 하고 끝나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오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오빠가 작업복을 입은 채 옷이 온통 새카맣게 석탄가루가 붙어있었고 마스크 대신 작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돌려매었는데, 땀이 많이 나서 눈과 코, 입 옆저리가 젖고 불그스레한 채로 서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속으로 검은 짐승 같이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빠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 '공기도 나쁘고 위험한데 매일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호주가 되어 공부도 더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가족을 위하여 일하여 아침 교대가 끝나고 집에 와서 식사하고 또 밤 교대로 나가 일했습니다. 밤 교대로 아침에 나오면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식사를 한 후 또 낮 교대로 탄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며칠은 1교대만 일하려 나왔습니다. 나는 집 안에 물이 없어서 매일 밖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1940년, 세계 전쟁이 일어났으니 식량이 점점 부족하여 배급되는 안남미, 보리쌀, 수수, 대두가 있었지만 그것도 일본에서 식량배가 오지 않아 점점 적게 배급되었습니다. 미쯔비시 회사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데 텐나이에 사는 한인들을 다른 탄광인 키타코자와 탄광으로 이주시켜 거기에서 약 반년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 오빠와 같이 일을 하시는 한인 단체를 다른 도시에는 토로시와 탄광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단독] '강제동원 문희상案' 배우자도 지원

'위로' 명목 지급대상 확대 추진 / 법안 보완 마쳐 발의 절차 돌입



사진=뉴시스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해법이라며 내놓은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담은 공동발의할 예정인 '문희상안'을 통해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마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의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야 의원과의 공동발의 절차에 돌입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위로'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제30조의 2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그 유족 중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관계자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지만,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안 된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배우자 수는 5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6조 1항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본인에게만 연간 80만원이 지급돼왔다.

이 외에도 개정안 신설 항목은 지원 대상의 범위 및 보상 수준을 상향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 항목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기간을 현행보다 2년 연장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미수금 지원금 액수에 '물가 상승률' 반영 △피해신고인이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 자료를 제시하면 지원위원회에서 재조사 등이다.

다만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사죄가 빠진 보상이 일본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문 의장의 방안은 피해자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안병수 기자)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вновь избрана ПАК СУН ОК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14 дека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отчетно-выбо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ней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39 делегатов из 47 (избранные на собраниях 17-ти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РООСК).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и заслушаны отчеты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с периода декабрь 2016 г. по декабрь 2019 г., отчет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Делегаты оценили работу РООСК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положительно,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продела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организации и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Сун Ок по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виз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дробно отчиталась о доходах и расходах РООСК, доложив, что финансовых нарушений нет.

В этот раз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был выдвинут единственный кандидат – действующий президент Пак Сун Ок. Она была избрана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за – 39, против – 1, воздержавшихся – 2).

Конференция приняла в члены РООСК две организации – Ассоциацию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мен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Ен Гон), Сахалинскую федерацию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ирым (председатель Чун А.Е.).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Ким Чун Ген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исключении из состава РОО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я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ман (Надежда)».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Пак Сун Ок вице-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утверждена действующи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Лим Эльвира Хаммоковн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Конференция выбрала правление в составе 30 чел. А также президиум правления в составе 11 человек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ице-президент Лим Э.Х., советник Ким Хон Ди, председа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Лим Ден Хв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ОСК Ли С.Д.,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Чон Ен Г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И Те Чуль,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им Ден Гир,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О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ак Ген Чун, советник О Тин Х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Ким Ве Чери).

Виктория Бя

## Константин Чан — лучший спортсмен ноября

Поздравление побед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портсмен месяца" состоялось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В ноябре лучшим стал тхэквондист Константин Чан. В голосовании,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набрал 1449 голосов.



Константин Чан уже десять лет является воспитанником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ноябре он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тхэквондо WTF "Кубок Приморья",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У меня были сильные соперники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Все три поединка я провел результативно и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Полуфинал был самым жестким,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агрессивный и техничный соперник был. Я подумал, успокоился и держал его на дистанции, не подпуская к себе, — поделился спортсмен. — Моя главная цель сейчас — победа на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в апреле.

С победой сахалинца поздрав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Ирина Рябкина.

— Мы рады, что у нас есть такие успешные спортсмены. Кроме того, у вас большие цели на будущее, и это тоже радует. Желаем вам побед. Мы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вас и следить за вашими успехами, — обратилась к победителю конкурса Ирина Рябки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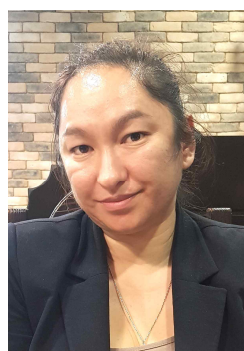
Константину Чану вручили диплом и памятный подарок. Кроме этого, сахалинец получит денежную премию.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К 80-летию нача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Дин Юлия, ст.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стория 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длилась долго, разные группы в разное время приезжали на остров и уезжали, или же их смела траг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XX в. Однако одно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оказало на современную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определяющее значение — это история добровольного и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ю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и Карафуто (Южный Сахалин) с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ой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и Тёсэн (Корея).



Получив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Южный Сахалин,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ереходит к активному освоению острова, которое требовало широкой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ассматривая эту политику, стои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Сахалин имеет особ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немало затрудняли жизнь прибывавших туда переселенцев — сложный климат,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удаленность и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для земледелия природные условия. Например, Россия для заселения остров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использовала каторжан, а после 1906 г. — вводила существенные льготы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Япония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колонистов также не только проводила политику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севозможных льгот, но и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ла трудовую вербовку и мобилизацию.

На первых порах переселение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южную часть Сахалина шло довольно медленно. В 1910 г. на Карафуто насчитывалось всего 33 корейца, и через пять лет, в 1915 г., их оставалось столько же. Только к 1920 г. наблюдается некоторый рост в числ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корейцев к тому времен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уже 513 человек.

С конца 1910-х гг. компания «Мицуи Майнинг Ко.» стала нанимать корейцев для работы на угольных шахтах,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юге Карафуто. Происходило это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Правление шахты Каваками, принадлежащей «Мицуи», в 1917 г. получило разрешение на вербовку корейцев от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ореи. После этого в г. Синчичжу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 начали вербовку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Контракт заключался на полтора года 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в частности, оплату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Зарботная плата для рабочих (японцев, корейцев, китайцев) в Тойоха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авляла 2,5 иены в день, а в Отомари (Корсаков) японцы получали также 2,5 иены, а корейцы — 2 иены в день. Надо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в то время средний заработок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самой Кореи составлял 15-20 иен в месяц, так что с чисто финансов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эти условия были достаточн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Предпочтение наниматели отдавали, в основном, холостым мужчинам.

В 1922 г. более ста корейцев из «Северо-сахалинск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лес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ереехали на Карафуто. В 1923 г. опять наблюдался приток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 из-за политики вытесне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с Приморья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Поскольку эти переселенцы изначально выехали в российское Приморье из 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 вместе с семьями, в это время на Карафуто также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числа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Количество и рост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Карафуто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следующими цифрами: в 1921 г. — 68 домохозяйств и 467 человек (444 мужчин и 23 женщины); в 1922 г. — 76 домохозяйств и 616 человек (577 мужчин и 39 женщин); в 1923 г. — 117 домохозяйств и 1464 человек (1256 мужчин и 207 женщин); в 1924 г. — 170 домохозяйств и 1827 человек (1522 мужчин и 305 женщин); в 1925 г. — 380 домохозяйств и 3533 человек (2660 мужчин и 873 женщин).

В 1925 г. влиятельны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братились к япо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 просьбой переселить на Карафуто около 3 тыс. корейцев из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Карафуто дал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ереселение 1

000 человек, но фактически на остров переехало 562 корейца. Они приехал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емей в Эсутору (Углегорск) и Сиритори (Макаров), получили там работу и остались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ли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 России (революции,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и иностранная, в том числе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совпал с возросшим спросом на рабочие руки, вызванный бумом бумаж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Эсутору, Сиритори и других частях Карафу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миграций из России, вербовки на шахты и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Кореи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конце 1920-х гг.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лась. В октябре 1930 г. на Карафуто насчитывалось 8301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эта цифра не может считаться достаточно точной. Так, в конце 1930 г.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уменьшилось и их осталось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только 5 359 человек. Такой большой скачок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по-прежнему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на острове составляли сезонные рабочие. Они покидали остров по истечении срока своих контрактов или по окончании сезонных работ в лесной или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орейцы прибывали на Карафуто из России, особо следует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этот период,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эти переселенцы и их потомки составили большин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и этом стоит учитывать, что процесс переселения был сходен с переселением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ю.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активно вербовали рабочих в Корею, агитируя их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ю высоких зарплат в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а. Поскольку,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мышленной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южная часть Кореи оставалась в этот период аграрным районом, именно оттуда большей частью и шло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Карафуто.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Карафуто шло медленно, причиной чего были конфуцианские традиции и страх перед переездом. Однак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бум сыграл свою роль — приезжая по трудовым контрактам через фирмы-вербовщицы и обосновавшись на острове, корейцы вызывали на Карафуто семью, а также уговаривал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односельчан последовать их примеру.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активно поощряли подобные способы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Карафуто. К тому же, в этот период шла активная миграция японцев в Корею, где он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осты, заняться бизнесом, а также становились землевладельцами.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колони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японские мигранты получали в свое распоряжение лучшие земл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для многих разорившихся корейских землевладельцев единственным выходом становилась миграция.

На процессы миграций на Карафуто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оказы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бстановка 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чало Тихоокеанской войны вызв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ставить под контроль трудовые ресурсы. Вскоре после 1937 г. гражданское население империи становится объекто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темпы которой быстро росли. В 1939 г.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850 человек, в 1940 г. — 311 724, а в 1942 г. — уже 623 385. Вся рабочая сила бралась на строгий учет (существовала так называемая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профессий»), при этом были приняты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самовольных миграций (закрепленные в указе 1940 г. «О запрещении рабочих и служащим меня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и указе 1941 г.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роса и предлож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Указ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на важнейш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фактически отменял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максимальную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рабочего дня и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которые отныне произвольно у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чиновниками. Вкупе с неизбежными лишениями и падением уровня жизни это вело к общему ухудшению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и росту смертност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редставили в СБ ООН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о смягчении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16 декабря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редставили в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с призывом смягчить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КНДР.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еследует цель улучши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ситуацию на Север.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ТАСС, располагающем копией документа, во втором пункте резолюц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Совбез ООН «должен адаптировать применяемые к КНДР санкционные меры в виду того, что страна выполняет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резолюциям». В шестом пункте предлагается снять ограничения, которые «напрямую затрагивают жизнь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КНДР».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документе говорится о поддерж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диалога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содержится призыв к практическим шагам по сокращ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воен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Предлагается вывести из-под санкций промышл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неприменимы для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КНДР, а также предметы домашнего обихода. Предлагается отменить запрет на экспор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текстиля, вывести из-под санкций проект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дорог. В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е США, между тем,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сейчас не время для смягчения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 РК – четвёртый в мире по величине импортёр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оружения

РК является четвёртым по величине импортёро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ружия в мир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ь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по контролю за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качеством обор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 2009 по 2018 год США продали вооружение разным странам на сумму 93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Среди этих стран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о сумме закупок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 13 млрд 4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алее следуют Австралия – 7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Объединённые Арабские Эмираты – 6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РК – 6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Япония на восьмой позиции – 3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ие именно виды вооружений закупала РК, не указывается. Из открытых источников известно,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иобретают американские истребители F-35A, беспилотны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самолёты RQ-4 Block 30 Global Hawk и другие.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56,1% всего объёма проданного за рубежо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оружения составили самолёты, 16,5% – ракеты, 11,8% – бронетехника.

##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проек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хеньяну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 виде рис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мерено продолжить проек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НДР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в виде 50 тыс. тонн риса. Бюджет проекта перенесён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реши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Северу такую помощь через Всемирну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 это было выделено около 2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рис и 11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ег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Хотя Север отказался от данной помощ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продолже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ддержки КНДР,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 Южнокорейцы в целом довольны своей страной

84% южнокорейцев гордятся тем, что они являются гражданами РК. 82% считают, что их страна является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жизни местом. Такими ста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На вопрос об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и жизнью 63,6% ответили, что счастливы. 68,3% указали, что видят смысл в той работе, которой они заняты. 63% сказали, что имеют свободный выбор в жизни. Вместе с тем, 24,4%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метили, что иногда испытывают депрессию без особой видимой причины. Многие говорят о безразличии окружающих. 83,3% гордятся историей своей страны. На вопрос о внутреннем разделении общества 91% отметили большие противоречия между прогрессивными и консервативными силами. Это на 14,5% бол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90%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метили серьёз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яризации.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острых проблем общества были отмечены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труда, низкая рождаемость и быстрое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разница между богатыми и бедными.

(RKI)

## Молодежь АНТОК в науке: четыре года — полет нормальный!

Четвертый год подряд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ТОК 2019 проходит в Москве.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выпало на 6 и 7 декабря.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туденты, аспирант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ученые 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Москвы, Воронежа, Саратова, Новосибирска, Екатеринбург, Симферополя и 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Daejeon.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и директор Корустек Со Гиль Вон,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Kim Jin Dong, почетный президент НТО «АНТОК», д-р техн.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Тен Эдис Борис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АНТОК, академик РАН, д-р физ.-мат.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Сон Эдуард Евгеньевич,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ТМОГРАФ, д-р физ.-мат. наук, зав. лаб. МФТИ Николаев Владимир Геннадьевич, ученые из Коре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

Первый день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ходил в Ресурсном центре НКО комитета общ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города Москвы в ЮВАО.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начала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НТО «АНТОК» Чо Гван Чун Дмитрия.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регулярность молодеж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благодарил спонсоров и партнеров и пожелал всем активной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Он напомнил участникам о целях 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ые состояли в следующем:

- популяризация научной работы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 студентов бакалавриата,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ов и выпускников вузов;

- укрепле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сообще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нимающихся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утем организации площадок для взаимного обмена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идеями и результатами.

Далее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МДКМ Пай Павел Павлович, который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е доверие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и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АНТОК и предложил в будущем укреплять партнер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выступил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цен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KORUSTEC Со Гиль Вон. Он отметил актив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и всех ее членов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также призвал участников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 пределами России, в част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Также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н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данного события для молодых 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уче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им Андрей Эдуардович поблагодарил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и приглашение, а также отметил вклад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оссийскую науку. Почетный президент НТО «АНТОК» профессор Тен Эдис Борисович в своей речи отметил активность всех членов, их сплоченную работу и пожелал участникам провести с пользой два дня конференции.

Основ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нференции началась с лекции академика РАН, д-ра физ.-мат.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Сона Эдуарда Евгеньевича на тему: «Уроки выборов в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19 года. Как стать ученым и как стать академиком?». Эдуард Евгеньевич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 опытом и рассказал всем свою историю становления академиком, немного



слов было о его разработках в сфер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а также отметил некоторые черты характера, которые отличают академика от других ученых. В конце своей лекции Эдуард Евгеньевич призвал ребят быть любознательными и пытаться в каждом процессе или явлении докапываться до сути.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ТМОГРАФ, д-р физ.-мат. наук, зав. лаб. МФТИ Николаев Владимир Геннадьевич в своей лекции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ам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ланах мировой энергетики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ладимир Геннадьевич раскрыл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НИЦ «Атмограф»,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авиацию и косм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кологию, энергетику и образование.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анными по плану развития глобальн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ети до 2050 года. Лекция представляла интерес, поскольку был затет вопрос о планах создания большого североазиатского энергокольца (САЭК), объединяющего энергосистемы России, Китая, Японии, Кореи, Монголии, 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б этапах развития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и оценить вклад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 конце лекции Владимир Геннадьевич представил список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и пожелал участникам в будущем решить некоторую часть из них, используя современные достижения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и в этой сфере.

На секции стендовых докладов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8 работ:

1. Ким Надежда, Новосиб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менение метода инверсионной вольтамперометрии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примеси ртути в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ах»;

2. Пак Александр, Томский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учение порошк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основе карбида молибдена в электродзарядной плазме»;

3. Кан Татьяна, Сиб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Анализ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смерти по Кожевниковскому району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16-2017 годы по данным Шегарского межрайо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ГУЗ БСМЭТО»

4. Цой Ксения, Сарат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гр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Н.И.Вавилова,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лиморфизма гена кератина KAP 1.3 овец кавказской породы»;

5. Ким Алексей, «Исследование структурообразования и свойств антифрикционного композицио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на основе свинцового баббита, армированного квазикристаллическими частицами системы Al Cu-F»;

6. Угай Евгения, Томский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Литолого-фациальный анализ 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дуктивных отложений Южно-Приобского нефтян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ХМАО)»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 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олодежь АНТОК в науке: четыре года — полет нормальны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7. Ким Ксения, Воронеж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жен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именение электролиза с 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биполярными мембранами для конверсии сульфата натрия»;

8. Ким Владислав,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втоматизация расчета солнечного облучения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зданий».

Все участники с энтузиазмом рассказывали о своих работах. Секция прошла оживленно, состоялся активный диалог между докладчиками и аудиторией.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развернуто и доходчиво отвечал на вопросы слушателей, показав тем самым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в изучаемой им области. Докладчикам пришлось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рус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и для презентации своих работ, т.к. слушателями были не только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е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но и гости и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окончании стендовой секции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голосование для выявления призеров.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доклад в секции стендовых докладов» присудили работам Ким Надежды и Цой Ксении. Второ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Ким Ксении и Кан Татьяне. Первое место заслуженно получил доклад Пака Александра. Все призеры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и грамоты.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такой форма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ет участни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лучше понять свою работу и, возможно, даже увидеть некоторые недочеты, благодаря вопросам,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полного развернутого ответа.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НТО «АНТОК» Клишевич Майкл выступил с лекцией на тему «Профессия программист». В своей лекции Майкл рассказал о его карьере в сфере IT, представил статистику по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профессий будущего, обозначил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тороны, а также уровень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а которую мож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специалист его области. Майкл упомянул о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мых в наше время языках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и кратко рассказал, для чего они применяются. Это была полезная лекция для тех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думываются, чтоб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огромному миру IT индустрии. В конце лекции Майкл пригласил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свой онлайн курс «Введение в web-разработку».

Директор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а ВГУ, д-р техн. наук Хван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 выступил с лекцией «Зачем нужны ВУЗовские бизнес инкубаторы». Александр дал общ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бизнес инкубаторах, как они работают, из чего состоят и что студент или молодой ученый будет иметь на выходе. Слушатели узнали о разных видах бизнес инкубаторов, их количестве 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смогли задать интерес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спикеру с получением развернутого ответа. Теперь студенты знают, что делать и куда идти, если у них появилась инновационная идея.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ервого дня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мышлению в формате игры в корейск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игру «Бадук». Тренерами выступили мастер 6-го дана, чемпион России, а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и Президент Москов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 Тимур Санкин, а также его советник Виктор Бахметьев. Виктор рассказал об истории зарождения игры, ее целях и пример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ее некоторыми правителями в принят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Тимур объяснил основы и правила, разобрал несколько схем начала игры, рассказал о тактиках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есколько игровых ситуаций. Посл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игре в двух партиях. По окончании мастер-класса всем были выданы сертификаты о присвоении 30-го кю в игре Бадук.

**Второй день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ходил в иннов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Сколково». Работали как в капсуле № 3 Технопарка «Сколково», так и активно перемещались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Утром участники прослушали лекцию руководителя групп развития экосистемы решен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Samsung,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НТО «АНТОК», канд. техн. наук Юн Светланы Геннадьевны на тему: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ндустрия и образование». Светлана рассказала об истории создания компании, о том, с чего все начиналось и что компания име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акже в лекции упоминалось о новейших разработках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е уже применяются и о тех, которые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пользователям продукции Samsung.

После лекции участник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экскурсию по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ехнопарка Сколково Наталья рассказала о миссии «Сколково» — создание Экосисте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роцесса: ученые, конструкторы, инженеры и бизнесмены совместно с участни-



ка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д созданием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х наукоемких разработок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уже действующий единственный филиал израильской клиники HADASSAH.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клиника уделяет профилактике и ранней диагностике опасных для жизн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неврологических,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патологий, применяя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актуальные зарубежные протоколы. Наталья рассказала о ключевом партнере — компании Ренова Лаб, здание которой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компаний-разработчиков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 последующей их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ей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Сколков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R&D Ренова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июне 2016 года, сегодня в нем успешно функционируют лаборатории и офисы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й.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капсулу для спуска космонавтов, памятник Гагарину рядом со зданием еще одного ключевого партнера Boeing. Большая территория выделена для Сбербанка. В 2017 году Сбербанк открыл самый большой в России центр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ощности центра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Сколково» способны вместить до 1 эксабайта информации.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узнать о планах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будущем и увидеть макет города, а еще узнать о стоимости прожи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колково.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или здание Сколк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и. Сколтех создан в 2011 году при участии Массачусетск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MIT).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провел экскурсию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казал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места для научных работ, зону отдыха студентов, рассказал об условиях поступления, о направлениях обучения: есть программы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уры и бакалавриата. Преподавание в Сколтехе ведется по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к: системная биомедицина 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электрохимическое хранение энерги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материалы;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добыча углеводородов; фотоника и квантовые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ые и инженерные вычислительн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задач с большими массивами данных; космические науки. Обучение по каждой из этих программ завершается присвоением степени бакалавра, магистра или PhD Сколтеха. Все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т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поэтому все поступающие должны подтвердить свое владение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Александр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о необходимых навыках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магистратуру или аспирантуру. Все обуч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бесплатное. Стипендия ранжиру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учащегося.

После обеда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на тему: «Студенты и наставники», модер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 канд.тех наук, доцент Пака Александр.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было внедрение проекта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НТО «АНТОК». Сначала Александр кратко раскрыл идею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её суть и о том, какая могла бы быть польза в этом для абитуриентов и сту-

дентов, затрагивая свой собственный опыт. После состоялась оживленная дискуссия введения этого проекта в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ществ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активно высказывали свои мнения, искали плюсы и минусы, а также способ реализации такой функции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и в будущем.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и визиты к резидентам Технопарка Сколково. Резиденты провели обзорную лекцию, в которой упомянули о миссии фонда «Сколково», результатах его развития, представили список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а также показали карт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фонда. Позже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или лабораторию Unim,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 иммуногистохимические анализы и является первой цифровой патоморфолог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ей в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ам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которы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в том числе робот, с которым ребята смогли поболтать и даже потанцевать. Для тех, кто проголодался, показали Блинчикодел (аппарат, который готовит свежие блины с различными начинками), а еще кто-то смог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свой организм, получив достаточно пол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здоровья. В заключении резиденты показали разработку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CaterWil. История проекта началась в 2012 году, первые продажи появились в 2016, а в 2017 разработчики выш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ровень. Технопарк Сколково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место, где любой житель нашей страны может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миру инноваций и лучше его понять.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ТОК — это площадка для обмена знаниями и идеями в среде молодежи и опытных экспертов. Он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кунуться в мир науки и примерить на себя этот вид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конференция — это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свой первый доклад в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й атмосфере стендовой секции и попасть в индексруемый РИНЦ сборник тезисов. Подводя итог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сновные цели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Молодежь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лучила мощный импульс научных идей, что, несомненно, скажется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благоприятно отразится на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отенциал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целом.

**Отзывы участников:**

**Ксения Цой, аспирант, Саратов:**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ТОК — это отличная ниша для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фере науки. Это ценный обмен опыта и информации. Впервые приняв участие на дан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формат стендового доклада позволяет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ёмко, за короткий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рассказать суть своего науч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полезные навыки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коммуникации. Комфортный и дружеский формат раскрепощает и сближает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Я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 провед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и!

**Нелли Цой, студент магистратуры, Москва:**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ТОК 2019 — это были два насыщенных дня с 9 утра до 9 вечера. Мы хотели создать такую атмосферу, чтобы участника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Мы постарались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совместить научные лекции и выступления с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орейской игрой и инновациями в Сколково. Много сил было вложено, но это стоило того, чтобы видеть довольные лица участников. Уверена, что к следующей конференции мы будем так же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ы.

**Татьяна Кан, ординатор, Томск:**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шла очень динамично и плодотворно. Буквально за два дня мы смогли погрузиться в мир науки. Доклады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актуальными и полезными, а лекци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и и информативными.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отлич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я и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ладислав Ким, студент бакалавриата, Екатеринбург:**

Я во второй раз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АНТОК, и впервые — в молодеж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ак и после прошлого раза, когда я участвовал в основ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АНТОК, остался под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научной жизни н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о многими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и наладил контакты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теми, кто работает или учится в той же сфере, что и я. Наиболее полезными для себя событи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нахожу пребывание в Сколково, поскольку удалось узнать от его резидентов о том, как в иннов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развиваются стартапы и то, как устроено обучение в Сколтехе, так как я рассматриваю дальнейшее обучение в этом учреждении.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больше людей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грузиться в научную жизнь и получить тот весомый опыт, которым делаются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Материалы сайта АНТОК)

주한인협회 결산선거회의에서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재선

(2면의 계속)

8월 초에 사할린을 다녀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윤상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총 5명)이 한인 문화센터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의 방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할린 한인 특별법 관련 현지 의견 직접 청취 및 사할린 동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었다. 사할린 특별법안 촉진 통과를 위해서는 박순옥 회장과 김홍지 주한인협회 고문, 김윤희 주여성회 회장이 한국을 다녀와 국회 앞에서 10월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하였다. 이 시위를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에서 이어서 했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은 사할린 동포들을 장기간 돕는 KIN(지구촌동포연대)이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며칠 전 한국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특별법안 내용의 변경을 전했다. 그래서 사할린에서 다시 새 법안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을 조성할 생각이라고 박회장이 전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관리와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생겨 이 문제 해결에 주한인협회 청년부가 나섰다며 좋겠다고 박회장이 언급했다.

그는 결산 3년간 2006년에 준공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수리작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했다. 그동안 1층 화장실, 교육원 사무실과 교실, 바닥, 지붕, 입구 계단, 난방시설 등을 수리하고 전등 교체, 창문 교체, 앞마당 정리작업 등등을 해왔다. 한인문화회관 옆 <아리랑>소공원 조성에도 이 야기했다. 또한 한인문화센터에는 사할린 한인 상설전시관을 조성했다.

3년간 수십 명의 한인활동가들이 주정부, 시정부로부터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았다.

박순옥 회장은 3년전에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약속한 바를 거의 다 지켰다며 단 토마리에서 한국방송 케이블 채널을 조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아마도 미약한 점도 있었고 실수 한 점도 있었다고 박회장은 보고를 마무리했다.

재정보고를 한 첸 인지아(전인자) 감사위원장은 결산기간 재정위반이 없었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있으며 주한인협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자세히 밝혔다.

두 보고가 끝난 뒤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유경옥 운영위원은 시한인회 운영위의 위탁을 받아 회의 참가자들에게 동 회 사업을 소개했다. 유 위원에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는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어른과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학교도 운영하고 어른들을 위한 노래교실, 무용교실, 타악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할머니들은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가지고 있다. 1세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와 들놀이도 개최한다. <무궁화>할머니 합창단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인회 회원들은 자주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가하고, 자체 행사는 물론 장애인 양로원, 주 도서관 행사에도 자주 참가하고, 사할린 한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추념비를 찾아 토요노동에도 참가하고 있다. 또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등산도 함께 하며 야유회를 간다고 보고했다.

코르사코브한인회 이태출 회장, 흘스크 한인회 박영순 회장, 주한인협회

청년부 이 세르게이 회장, 아니와 한인회 배영희 부회장, 마카로브 한인회 고영순 회장, 사할린주 사회원 위원인 마이아 키릴로와 시두마 의원 등은 박순옥 회장이 좋은 지도자이며 그간 주한인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고 평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시한인회 운영위 회의에서 주한인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그 동안 박순옥 회장이 이끄는 주한인협회가 사업을 잘 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옥 회장이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장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추모관 문제에서도 박순옥 회장과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추모관 문제는 한인사회의 내부적인 문제고 사할린 사회원 관계자까지 이 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는 덧붙이고 한국 국적 취득과 관련해 박 회장이 전 정의복재단 김복곤 지도자를 제때에 지지했으면 이와 관련 문제가 훨씬 더 빨리 났을 거라고 지적했다.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를 대표한 리성교 씨는 친목을 통해서 사업을 다 같이 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 취득 문제와 관련해 국적 신청을 한국에 가지 않고 현지에서 등록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지방에서 한인회 재정이 어려우니 비영리 단체라도 만들어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토론을 마무리한 박순옥 회장은 모든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 회장이 이번 회의에 불참해 이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고 김복곤 지도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 자신은 지금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와 한국 양국 간 이중국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주한인협회 결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8개 조항의 결정을 채택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에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되었고 회의에서도 누구도 출마 의향을 보이지 않아 투표지에는 박순옥 후보 이름만이 올랐다. 그는 이날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함께 일하는 팀과 협력해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효 투표 - 39건, 찬성 - 36, 반대 - 1, 기권 - 2. 이렇게 하여 박순옥 회장이 다수가결로 재선되었다.

이날 주한인회 단체회원으로 <한인사업가협회>(회장 천영곤)과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를 가입시키고 김춘경 회장의 부재로 <소망>어린이장학협회는 주한인협회에서 자연 탈락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회원 대표를 포함해 30명으로 구성된 주한인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의 간부회(11명)를 뽑았고 박순옥 회장이 주한인회 부회장으로 제안한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학장(현 부회장)을 승인으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뽑혔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번 결산선거대표자회의는 3년전과 달리 건설적이었고 3시간 반에 마칠 수 있었다. 2016년 결산선거회의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져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7시간만에 막을 내렸다고 상기시킨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연말 위문품 전달

- 18일(수)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안산 고향마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  
- 1998년부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위문품 전달

연말을 맞아 전국 30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27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제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재단 오영훈 기획이사와 직원들은 18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안산 고향마을 등을 방문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생필품, 파스세트 등 위문품을 직접 건넸다.

또한, 동포들과 함께 고향마을 시설을 둘러보고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훈 기획이사는 "이번 방문과 위문품 전달이 영주귀국 동포들에



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말했고, 안산고향마을 노인회 양윤희 회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영주귀국 동포들은 연말연시면 더 외롭고 쓸쓸한데 매년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주니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워했다.

한편, 제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쌀과 생필

품, 의료기기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사할린 동포들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돌아왔으며, 현재 서울과 인천, 안산, 부산 등 30여 지역에 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경남도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남의 비중 크다"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조사' 필요성 공감대 형성...조례로 뒷받침 예정  
10일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된 전국 피해자 중 20% 이상이 경남도민이며, 한반도 밖으로 동원된 첫 피해자도 경남도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도 485곳(진해장천동 일본군 지하호 등)에 달한다.

경남도민은 1939년 2월부터는 중부태평양, 남사할린, 만주로, 같은 해 10월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국외 경우 남양군도, 남사할린, 만주,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도민 3만여 명이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주장은 경상남도의회가 10일 대회의실에서 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위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추가조사 등 진상규명이 멈춘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를 모색한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추모제 등 기념사업을 벌이거나 피해자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

정혜경 위원은 "강제동원 역사 중 경남의 비중이 크므로 기록공간을 만든다면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강제동원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강제동원 기록과 유해 등을 찾는 남북공동조사(경남도민은 사망자 중 2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를 통해 남북통일과



김지수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반전, 평화에 대한 경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진 의원(창원3,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기록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근로정신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근로정신대는 일제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군수공장으로 동원한 인력으로, '정신대=위안부'라고 잘못 알려져 피해자로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관계의 핵심 사안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비중이 큰 경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 회복과 예우, 또 후세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메디안ная зарплата составляет 57,1 тысячи рублей, а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доходы колеблются от 33 до 87 тысяч рублей.

##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쿠릴 상륙작전 기념 동전 200 만 개 발행 예정

러시아 중앙은행이 쿠릴 상륙작전 기념 동전 200 만 개를 발행한다. 금융기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니켈 도금을 한 5루블 동전이 2020년에 유통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에 발행할 예정인 이 동전은 비귀금속 동전 목록의 18번째이다. 이 동전은 일본군에 대항한 제 2 극동 전선과 소련 태평양 함대의 작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1945년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지속된 전투 활동의 결과 56개의 쿠릴섬들이 구소련의 영유권으로 들어갔다.

## Центробанк выпустит 2 миллиона монет, посвященных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выпустит два миллиона памятных монет, посвященных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ять рублей с никелевым гальваническим покрытием пойдут в обращение в 2020 году, сообщает на сайте финанс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онета стала 18-й в списке монет из драгоценных металлов,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выпуст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Ее посвятили важному событию — операции 2-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СССР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войск. Солдаты разгромили и взяли в плен свыше 50 тысяч противник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лись с 18 августа по 1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в состав СССР вошли 56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 중 100 만 루블리를 양육비로 지급하게 하다

국가 로또 당첨에 우승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주민이 당첨금 중 100만 루블리 이상의 금액을 아동 양육비를 지급했다. 당첨금 집행관이 지역 언론에 이 행운아에 대한 정보를 몰랐더라면 이 당첨금은 감추어졌을지도 모른다. 주 복권 관리사무소의 소식에 따르면 이 주민이 국가 로또 당첨으로 5백만 루블리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이 놓치지 않고 소식을 전한 가운데 당첨금 집행 절차를 담당하던 심사 집행자가 기사를 읽은 후 아동 양육비 지급 당첨자를 알게 되었고 법무 대표가 이 행운의 남성에게 전화해 로또 당첨 우승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이 시행 요건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은 가운데 그가 아동 양육비 명목으로 수익의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집행관이 밝혔다. 이후 절차 시행자는 당첨금 일부 징수에 대한 조례를 인쇄해 중앙 당첨금 지급 센터로 서류를 보냈다. 당첨자가 지급한 백만 루블리 이상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집행부 예금 계좌로 들어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백만 루블리가 넘는 액수의 돈이 이미 유즈노사할

린스크 집행관리처 담당 부서 예금 계좌에 보내져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 Сахалинца заставили заплатить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алиментов с лотерейного выигрыша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платил алименты на сумму свыш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 дохода,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от выигрыш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лотерее. Возможно, островитянин сумел бы скрыть внезапную удачу, если бы судебные приставы не заметили информацию о везунчике в региональных СМ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управлении службы приставов, житель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ыиграл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лотерее более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овость о гражданине, который поймал удачу за хвост, подхватила местная пресса. Прочитав одну из заметок, судебный пристав-исполнитель узнал в победителе плательщика алиментов,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ответчиком п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му производств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закона позвонил везучему мужчине, и тот подтвердил информацию о выигрыше. Пристав пояснил, что требования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икто не отменял, а островитянин должен выплатить четверть своего дохода в качестве алиментов. После этого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вынесл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взыскании части выигрыша и направили документы в центр выплат.

Деньги в сумме свыш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уже поступили на депозитный счет отдела судебных пристав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х перевели взыскателю.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